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임원선거 출마소견문

1. 후보자 인적사항

구 분	위원장 후보	부위원장 후보
성 명	이철환	이종준
소 속	총무팀(노동조합)	입학관리팀

2. 출마소견

유능하고 강한 노조! 두려움 없는 실천! 확실한 성취를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37년 역사의 대구대학교 제20대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이철환, 부위원장 후보 이종준,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충심으로 인사 올립니다.

저희는 급여 인상 및 처우 개선 목표를 완수하고, 오로지 조합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조합원 동지들께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우리 일터의 위기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그 가치를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조합원 동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총의를 실천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력한 노조**를 만들 **책임자**임을 확신합니다!

이철환 후보의 노조는 경영의 문제를 직원사회에 전가하며 호시탐탐 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한 본부를 견제하면서 신입생 등록률 80.8%라는 대학 초유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총장을 퇴진시킨 강한 노조입니다. 임기 동안 보직해임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합원 인사 조치를 온몸으로 막아낸 진짜 노조입니다. 8년여 만에 임금 인상을 쟁취해낸 유능한 노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조합원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실천 노조입니다. 대학 총장 선거에서 전국 최대의 직원 참여비율을 확보한 성취 노조입니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노조를 만들고자 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3년의 임기는 대부분의 노조가 취하고 있는 제도이며, 노조 운영의 안정성과 대학 본부에 대한 견제력 및 교섭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다만, ‘자리 욕심이 과하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이철환 후보는 제20대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마지막 출마라는 것을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하게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동지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학 본부에 제20대 노동조합 임원 임기 동안 저희

두 명에 대한 **특혜적 인사 조치 배제**를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모범적인 노조 임기 제도를 안착시켜 향후에도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시행착오 없이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충실하도록 그 전형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 존재의 본질은 조합원의 경제적·인권적 권익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본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예방하면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동종의 임·단협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복지, 경제적 권익을 충분히 쟁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환 후보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준비된 후보**이고, 그의 노조는 **확실히 준비된 노조**입니다.

이철환 후보는 피소당한 조합원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게시한 성명서로 인해 4년여 동안 개인적인 민·형사 소송에 시달렸으나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인한 투쟁력을 기를 수 있었고,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을 천명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조합원을 잃는 슬픔 속에서 이철환 후보는 적절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인간애로 사실관계 조사를 강력 촉구하였고 경과를 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족의 슬픔을 최대한 위로해 드리는 결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의 여러 사정이 있지만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동지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면으로나마 영면에 드신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이철환 후보는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동편·서편의 **단과대학 행정실** 겸임 인사 발령을 통한 **통합 운영**을 대학 본부와 담판을 통해 **저지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근년간 조합원의 고통을 동반시킨 인사정책, 노동강도를 급상시킨 단과대학 행정실 통합 운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향후 **‘편제조정의 완결’** 없이 진행되는 **직원의 겸임 발령** 및 **단과대학 행정실 통합 운영**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교육 일선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흡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이철환 후보는 임기 동안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성과**를 쟁취해 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	비고
①성과상여금 추가인상(100% 상당) 지급	17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
②자녀가족수당 인상(6만원/월 상당)	
③가족돌봄휴가 제도 최초 도입	
④방학 중 단축유연근무제 최초 도입	
⑤퇴직보전금 폐지 저지(원상복구)	
⑥특별휴가 쟁취	18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
⑦학기 중 유연근무제 최초 도입	
⑧총장선거 직원참여 전국최대비율 확보	
⑨장기근속자(10년, 30년) 포상특별휴가 시행	
⑩구.범대위 성금 회수를 통한 수입창출(3,600만원)	
⑪임금 인상(봉급의 1.6%)	19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
⑫자녀가족수당 추가 인상(3만원/월)	
⑬역대급 규모의 신규직원 총원 관철(19명/2년)	
⑭명예퇴직 수당 산정기한 원상복구 원점 재논의 합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에 쉽지 않은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서 슬기로운 지혜와 단결된 힘을 모아 주신 결과로써 얻어 낼 수 있었던 값진 성과입니다. 물론 동지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보답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20대 노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달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약속**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사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강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①부서별 퇴직 인원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신규직원 총원과 적재적소 인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②능력에 따른 승진 인사와 근속 연수에 따른 승진 인사가 조화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③동일 부서 2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단기적 전보인사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조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④근속 20년 이상 조합원의 전보인사는 사전 고지하고, 계획적인 인사정책이 수립·시행되어 인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⑤총장선거 직원참여비율 1인 1표제를 관철하겠습니다.

둘째, 급여 인상 및 처우 개선, 복지향상을 쟁취하는 유능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대학 본부와의 투쟁을 통해 8년여 만에 임금을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와 비판을 견뎌하게 수용합니다. 제20대 노동조합에서는 더 전략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①5% 이상의 임금인상을 쟁취하고, 후배 세대가 더 높은 비율로 임금 인상되는 하후상박형 형태로 관철하겠습니다. ②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③정년 연장을 추진하여 퇴직 후 경제력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④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정상화하겠습니다. ⑤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업을 발굴하여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합원의 목소리를 더 빠르고 기민하게 읽어내는 통합의 노조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힘의 원천은 조합원의 뜻을 가장 합리적으로 모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잘 듣고,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❶ 다양한 소통창구를 제도화하고, 현장을 최대한 많이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의 생생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❷ 조합원 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단결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요청에 대해 조합원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고 해결하겠습니다. ❹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통·공감 및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❺ 고충처리상담 기능을 노조가 기민하게 수행하고, 소외된 조합원과 아픔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은 발전적인 대학경영을 위한 제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불합리한 정책 결정이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비판을 통해 대학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해 내겠습니다. 또한 제20대 노동조합에서는 동지들과 보다 혁신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의 총의를 모아 미래세대에도 든든한 우리의 노동조합 전통이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노조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통과 체계를 바탕으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래형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대학교 조합원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의 냉엄한 평가와 판단으로 이철환·이종준 후보가 노동조합을 맡게 된다면, 조합원 동지의 단결된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고 경청하는 통합의 노동조합**, 불합리한 인사행위와 인권 침해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예방·대응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쟁취하는 노동조합**, 대학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노동조합**,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젊고 역동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비판과 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노동조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위원장 입후보자 이 철 환 **이철환**(인)

부위원장 입후보자 이 종 준 (인)